

ORIGINAL ARTICLE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7;56(3):111-117  
Print ISSN 1015-4817  
Online ISSN 2289-0963  
www.jknpa.org

## 학교폭력 참여자 역할에 따른 정신병리 비교

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의학과,<sup>1</sup>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정신건강의학과,<sup>2</sup>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sup>3</sup> 아주편한병원<sup>4</sup>

이충호<sup>1</sup> · 이지원<sup>2</sup> · 신윤미<sup>3</sup> · 김영훈<sup>1</sup> · 이영문<sup>4</sup> · 이제정<sup>1</sup>

### Psychopathology Associated with Participant Role among Bullying Situation

Chung Ho Lee, MD<sup>1</sup>, Jee Won Lee, MD<sup>2</sup>, Yun Mi Shin, MD, PhD<sup>3</sup>,  
Young Hoon Kim, MD, PhD<sup>1</sup>, Young Moon Lee, MD<sup>4</sup>, and Je Jung Lee, MD<sup>1</sup>

<sup>1</sup>Department of Psychiatry, Gongju National Hospital, Gongju, Korea

<sup>2</sup>Department of Psychiatry, Soonchunhyang University Bucheon Hospital, Bucheon, Korea

<sup>3</sup>Department of Psychiatry,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uwon, Korea

<sup>4</sup>Ajougood Hospital, Suwon, Korea

**Objectives** In recent years, school violence has been increasing and this situation is complicated by various factor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stribution of the participants' roles and to examine the psychopathology associated with these roles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Methods** In a cross-sectional study, 490 middle school students completed the Participant Role Questionnaire (PRQ) for classifying the participants' roles in a bullying situation. The Korean-Youth Self Report (K-YSR), 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RCMAS), 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 and Parent 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PACI) were also included to evaluate the psychopathology of the students.

**Results** The distribution rates of the bully, assistant, reinforcer, defender and outsider groups were 4.1%, 3.1%, 5.3%, 53.7%, and 32.0%, respectively. Among the syndrome scales of K-YSR, almost each items' and the total scores ( $p=0.049$ ), RCMAS ( $p=0.000$ ), PACI ( $p=0.000$ ), and RSE ( $p=0.000$ )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all group. The average scores on the K-YSR and RCMAS were the highest in the assistant and reinforcer groups.

**Conclusion** The assistant and reinforcer groups showed more severe psychopathologies. This means that they suffered from more difficulties than the other groups. Therefore, they need more intensive therapeutic interventions. Except for the defender group, who prevented bullying, the outsider group was the largest group. Therefore, a comprehensive approach that can change outsiders to defenders should be employed for the prevention of bullying in adolescents.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7;56(3):111-117

**KEY WORDS** Bullying · Participant psychopathology · Adolescent.

Received June 25, 2017  
Revised June 30, 2017  
Accepted July 3, 2017

Address for correspondence  
Je Jung Lee, MD  
Department of Psychiatry,  
Gongju National Hospital,  
623-21 Gobunti-ro,  
Gongju 32601, Korea  
Tel +82-41-850-5700  
Fax +82-41-855-6969  
E-mail selfobjc@naver.com

## 서 론

최근 학교폭력 연구는 가해자와 피해자 등의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학교폭력을 목격한 참여자들을 포함하는 힘에 근거한 집단역동의 과정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들로 바뀌고 있다.<sup>1)</sup> 실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뿐 아니라 학급이나 학교 전체의 구성원이 학교폭력에 가담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참여한 구성원들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학교폭력에 대한 개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Salmivalli 등<sup>2)</sup>이 핀란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참여자(participant)의 역할을 분류한 이후로 다양한 연구<sup>1-3)</sup>에서 참여자 역할을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피해자를 적극적, 주도적으로 괴롭히는 가해자(bully), 학교폭력의 최종적인 희생자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victim), 가해자의 추종자로서 가해자를 도와주는 가해 조력자(assistant), 가해자의 행동을 격려하고 강화하는 가해 강화자(reinforcer), 피해자의 입장을 옹호하고, 학교폭력을 방어하는 피해 방어자(defender), 학교폭력을 목격하고도 모른 채하거나

가만히 보고만 있는 방관자(outsider)가 여기에 해당된다. 방관자란 ‘괴롭힘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되지만, 학교폭력의 방관자들은 단순한 수동적 목격자가 아닌 괴롭힘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방관자에 주목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sup>4)</sup> 방관자는 학교폭력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지만 집단 역동에서는 상당히 다른 역할들로 구분되며 본 논문에서는 참여자 역할을 Salmivalli 등<sup>2)</sup>의 분류대로 정의하고자 한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불안, 우울, 자살사고, 해리, 수면장애 등의 정신병리와 연관이 있고 장기 추적에서도 정신사회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5)</sup> 또한 Janson과 Hazler<sup>6)</sup>과 Langdon과 Preble<sup>7)</sup>에 따르면 학교폭력 목격자 역시 피해자와 비슷한 심리적, 생리적 외상경험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였고, 장기적인 추적관찰에서도 우울증이나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 물질남용이 높게 나타나며, 비행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 학교부적응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이외 참여자 집단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또래집단에서는 다수를 차지하는 이들의 태도와 행동이 학교폭력 발생에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sup>8,9)</sup> Salmivalli<sup>10)</sup>는 학교폭력 상황에서 가해자를 지지하는 행동은 가해자에게 보상으로 작용하고, 방관자적인 태도 역시 암묵적 승인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어 학교폭력 가해 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O’Connell 등<sup>11)</sup>과 Tapper와 Boulton<sup>12)</sup>은 참여자들 중 피해자를 지지해주거나 학교폭력의 상황을 중재하려는 구성원, 즉 피해 방어자의 행동이 학교폭력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학교폭력 상황에서 외부의 치료적 개입이 없다면 참여자들의 역할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학교폭력의 피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sup>3,13,14)</sup> 최근 이러한 집단역동의 관점에서 다수인 방관자들의 특성을 변화시켜, 이들이 피해 방어자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려는 프로그램이 다수 시행되었고,<sup>15-19)</sup> 그 효과 역시 메타분석<sup>20)</sup>에서 입증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첫 번째로 국내의 학교폭력 참여자의 역할 분포를 알아보고 두 번째로 참여자 역할에 따른 정신병리 및 부모자녀관계를 비교하고자 한다.

## 방 법

### 조사 대상 및 절차

조사 대상은 충청남도 공주시의 한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12~15세의 남자 중학생들로, 총 510명의 연구 참여자 중 개인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설문지에 충실히 응답하지 않은 20명을 제외한 490명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들은 자료 수집 이전에 학교장, 교사 간담회를 통해 연구의 취지 및 시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2014년 7월 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의 취지와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아주대학교 병원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IRB No. : AJIRB-SBR-SUR-14-120).

## 도 구

### 기초설문지

연구참여 대상자의 연령, 학년, 부모와의 거주 여부, 부모의 학력 및 경제적 수준, 흡연, 음주 등이 포함되었다.

### 학교폭력 참여자 역할 평가도구 : Participant Role Questionnaire(PRQ) 척도

참여자의 역할 분포를 평가하기 위해서 Salmivalli와 Voeten<sup>3)</sup>의 연구에 사용되었던 15문항의 Participant Role Questionnaire(이하 PRQ)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해자(bully), 가해 조력자(assistant), 가해 강화자(reinforce), 피해 방어자(defender), 방관자(outsider)에 대해 각각 3문항씩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 청소년들의 문제 행동 평가도구 :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평가표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평가표(Korean-Youth Self Report, K-YSR)

청소년들의 문제 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Achenbach와 Edelbrock<sup>21)</sup>이 개발하고 Oh 등<sup>22)</sup>이 한국어로 번역하고 표준화한 Korean-Youth Self Report(이하 K-YSR)를 사용하였다. K-YSR은 지난 6개월간 경험한 행동과 감정에 대한 118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0점)”,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1점)”,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2점)” 중 하나로 답변하게 되어 있다. K-YSR은 적응척도와 문제행동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척도 중 문제행동증후군 척도(syndrome scales)를 사용하였으며, 세부 정신병리 항목으로는 위축, 신체 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 문제, 주의집중 문제, 규칙위반, 공격행동, 기타 문제로 이루어져 있다. 위의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들 중 일부는 내재화 문제(위축, 신체 증상, 우울/불안), 외현화 문제(규칙위반, 공격행동)의 하위 범주로 분류되어 채점된다.

불안 정도 평가도구 : 소아 불안 척도(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RCMAS)

Reynolds와 Richmond<sup>23)</sup>가 개발하였으며, Choi와 Cho<sup>24)</sup>가 한국어로 번안하여 표준화한 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이하 RCMAS)은 성격적인 특성으로 불안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자가평가척도이다.

자아존중감 측정도구 :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

Rosenberg<sup>25)</sup>가 개발하고 Jeon<sup>26)</sup>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의 자아존중감, 즉 자기 존중 정도와 자아 승인 양상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검사로서 총점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 측정도구 :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측정도구(Parent 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PACI)

Barnes와 Olson<sup>27)</sup>이 개발하고, Min<sup>28)</sup>이 번안한 Parent 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이하 PACI) 중 청소년 자녀용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의사소통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긍정적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역기능적이고 폐쇄적임을 의미한다.

## 통계분석

성실하게 설문에 답한 49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학교폭력에서의 참여자 역할을 백분율로 측정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참여자 역할에 따라 가해자, 가해 조력자, 가해 강화자, 피해 방어자, 방관자 군으로 분류하였다. 참여자 역할 집단 간 정신병리의 정도, 불안정도,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각 집단의 K-YSR, RCMAS, Rosenberg Self-Esteem Scale(이하 RSE), PACI 평균 점수를 일원배치 분산 분석하였고, Tukey honestly significant difference(이하 HSD)를 사후 검정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양방향  $p < 0.05$ 로 규정하였고, 모든 분석은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이하 SPSS) 18.0 software(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였다.

## 결 과

###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정보

표 1에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을 제시하였다. 대상자들은 중학교 1학년이 131명(26.7%), 2학년이 182명(37.1%), 3학년이 177명(36.1%)으로 고르게 분포되었고, 대부분의 학

생(87.1%)들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절반 정도의 부모(아버지의 경우 48.6%, 어머니의 경우 48.4%)가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흡연경험(10명, 2.0%)

**Table 1.** Sociodemographic data of participants

	n (%)
Grade	
7th grade (age 13)	131 (26.7)
8th grade (age 14)	182 (37.1)
9th grade (age 15)	177 (36.1)
Living with	
Both parents	427 (87.1)
Single parent	34 (6.9)
Other guardian	22 (4.5)
Missing	7 (1.4)
Monthly household income*	
Less than 1500 USD	15 (3.1)
1500-3000 USD	86 (17.6)
3000-4500 USD	152 (31.0)
Above 4500 USD	128 (26.1)
Other	98 (20.0)
Missing	11 (2.2)
Education level of father	
College and above	238 (48.6)
High school	181 (36.9)
Middle school or below	8 (1.6)
Other	58 (11.8)
Missing	5 (1.0)
Education level of mother	
College and above	237 (48.4)
High school	185 (37.8)
Middle school or below	6 (1.2)
Other	56 (11.4)
Missing	6 (1.2)
Smoking	
Yes	10 (2.0)
No	480 (98.0)
Drinking	
Yes	19 (3.9)
No	469 (95.7)
Missing	2 (0.4)

\* : 1 USD=1000 Korean Won

**Table 2.** Distribution of participants' role in bullying situation

Participant role	n (%)
Bully	20 (4.1)
Assistant	15 (3.1)
Reinforce	26 (5.3)
Defender	263 (53.7)
Outsider	157 (32.0)
Missing	9 (1.8)
Total	490 (100.0)

과 음주경험(19명 3.9%)이 없다고 보고했다. 또한 인구학적 정보의 항목들은 각각의 참여자 역할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 참여자 역할 분포와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따른 참여자 역할 분포

표 2에 참여자 역할 분포를 제시하였다. 피해 방어자 263명(53.7%)과 방관자 157명(32.0%) 집단의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가해자, 가해 조력자, 가해 강화자 집단은 각각 20명(4.1%), 15명(3.1%), 26명(5.3%)이었다.

#### 참여자 역할에 따른 정신병리의 정도, 불안정도,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 비교

각 참여자 역할별 K-YSR, RCMAS, PACI, RSE 평균점수를 제공하고, Tukey HSD 사후검정을 통해 각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참여자 역할을 표 3에 제공하였다.

참여자 집단 간 K-YSR 각 항목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신체증상과 미성숙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가해 조력자 집단이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가해 조력자 집단은 그 중 주의집중 문제를 제외한 항목에서 피해 방어자 집단보다 더 높은 정신병리를 보였고, 가해 강화자 집단은 비행, 공격성, 외현화 항목에서 피해 방어자 집단보다 더 높은 정신병리를 보였다.

RCMAS, RSE, PACI 점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불안 정도를 나타내는 RCMAS는 가해 강화자, 가해 조력자, 방관자, 가해자, 피해 방어자 순으로, 자아존중감을 나타내는 RSE는 피해 방어자, 방관자, 가해자, 가해 조력자, 가해 강화자 순으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정도를 나타내는 PACI는 피해 방어자, 방관자, 가해 강화자, 가해 조력자, 가해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고 찰

본 연구는 학교폭력 상황에서 가해자나 피해자로만 구분하던 지금까지의 접근과는 다르게 집단의 역동을 알게 해 주는 참여자의 역할을 조사하여 그 분포를 살펴보고, 참여자의 역할에 따른 정신병리, 불안감,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을 조사해 보았다.

본 연구의 참여자 역할 분포에서는 피해 방어자(53.7%)와 방관자(32.0%)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구마다 학교폭력 참여자를 정의하는 기준이 차이는 있었으나 비교적 비슷한 기준과 연령대를 대상으로 핀란드에서 시행된 Salmivalli 등<sup>2)</sup>의 연구에서는 방관자(23.7%), 피해 방어자(17.3%), 가해 강화자(19.5%), 역할 없음(12.7%), 피해자(11.7%), 가해자(8.2%), 가해 조력자(6.8%) 순으로 분포하였고, 핀란드에 이어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독일 등에서의 연구 결과를 보면 청소년 기의 20~30%가 학교폭력을 지지하는 가해 조력자 혹은 가해 강화자로, 20% 이내가 피해 방어자로, 20~30%는 방관자의

**Table 3.** Comparison of K-YSR, RCMAS, RSE and PACI among participants' role

	B M (SD)	A M (SD)	R M (SD)	D M (SD)	O M (SD)	ANOVA p-value	Post-hoc by Tukey HSD (p<0.05)
K-YSR							
Withdrawn	2.42 (3.17)	3.67 (3.44)	2.92 (3.15)	2.13 (2.50)	2.79 (2.48)	0.031*	-
Somatic complaint	2.74 (3.51)	3.53 (3.31)	2.83 (3.41)	2.48 (3.07)	2.09 (2.41)	0.307	-
Anxious/depressed	5.61 (7.12)	8.93 (8.00)	6.57 (6.57)	4.42 (4.68)	5.03 (4.67)	0.005*	A>D, O
Social problems	2.00 (2.26)	3.40 (1.84)	2.48 (1.98)	1.95 (2.14)	2.34 (2.25)	0.060	-
Thought problems	1.89 (2.28)	4.00 (3.95)	2.48 (2.10)	1.59 (1.75)	1.49 (1.64)	0.000*	A>B, D, O
Attention problems	4.37 (4.27)	6.27 (4.27)	5.69 (3.88)	4.12 (2.92)	5.01 (2.96)	0.003*	O>D
Rule-breaking behavior	2.42 (2.50)	4.00 (4.63)	3.15 (2.43)	1.90 (1.83)	2.21 (2.40)	0.001*	A>D, O/R>D
Aggressive behavior	6.50 (6.60)	12.71 (9.12)	9.88 (5.27)	5.71 (4.80)	6.63 (5.45)	0.000*	A>B, D, O/R>D, O
Other problems	4.47 (5.08)	6.73 (5.71)	4.16 (3.77)	2.34 (2.93)	3.29 (3.17)	0.000*	B>D/A>D, O/O>D
Internalizing	10.61 (12.05)	15.60 (12.65)	12.43 (11.76)	8.97 (8.52)	9.68 (7.54)	0.030*	A>D
Externalizing	8.72 (8.33)	17.00 (13.56)	13.08 (7.40)	7.62 (6.20)	8.61 (7.12)	0.000*	A>B, D, O/R>D, O
Total score	32.71 (32.08)	58.92 (40.18)	40.79 (24.69)	28.36 (21.03)	31.02 (19.71)	0.000*	A>B, D, O
RCMAS	14.35 (6.84)	17.47 (9.01)	17.80 (7.92)	12.95 (6.17)	14.65 (6.58)	0.000*	R>D
RSE	33.00 (6.63)	31.87 (7.78)	33.19 (8.31)	36.37 (5.60)	33.79 (5.26)	0.000*	D>A, O
PACI	62.16 (13.22)	64.53 (16.52)	66.73 (18.29)	75.04 (13.76)	68.32 (13.59)	0.000*	D>B, A, R

\* : p<0.05. M : Mean, SD : Standard deviation, K-YSR : Korean-Youth Self Report, RCMAS : 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RSE : Rosenberg Self-Esteem Scale, PACI : Parent 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A : Assistor, B : Bully, D : Defender, O : Outsider, R : Reinforce, ANOVA : Analysis of variance, HSD : Honestly significant difference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sup>29)</sup> 2008년 530명의 11~13세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Seo<sup>30)</sup>의 연구에서는 참여자 분포가 피해 방어자(24.2%), 방관자(21.1%), 가해 조력자(18.3%), 피해자(14.2%), 가해자(12.6%) 순으로 분포하였고, 2005년 599명의 11~12세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Sim<sup>14)</sup>의 연구에서는 방관자(23.2%), 피해 방어자(18.8%), 가해 조력자(10.6%), 가해 강화자(10.6%), 가해자(11.7%), 피해자(4.2%)로 순으로 분포하였다. 다른 국내외의 연구<sup>2,13,14,30,31)</sup>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는 방관자와 피해 방어자가 다수인 결과는 부분적으로 다른 연구들과 일치하였으나, 피해 방어자의 비율이 제일 높았고 피해 방어자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이와 같이 피해 방어자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는 이유는, 첫째로 학교폭력 참여자 역할을 조사하는 방법이 자가 보고식으로 진행되어, 피해 방어자가 더 많이 측정되는 긍정오류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비슷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나 자가보고와 급우의 보고를 토대로 참여자 역할을 평가한 Salmivalli 등<sup>2)</sup>의 연구를 참고하자면 급우의 보고에 비해 자가보고의 경우 학교폭력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도 대다수의 아동청소년들이 학교폭력에 부정적이고,<sup>32-34)</sup> 그들 스스로를 피해 방어자 집단으로 여겨지기를 원한다고 하였다.<sup>2,35)</sup>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작성의 충실도를 높이고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설문지 조사 전에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의 이해, 정의와 더불어 학교폭력 참여자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이 있었고, 이런 과정이 자기 보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폭력이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더라도 실제 학교폭력 상황에서 다수의 청소년들은 집단역동에 의하여 학교폭력을 어른에게 알리는 것을 꺼리고 심지어는 학교폭력에 조력자로 참여하기도 한다.<sup>29)</sup> 청소년기에 근접할수록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태도는 또래 집단이 피해자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고, 이러한 집단 과정에 의해 점차 '피해자가 학교폭력을 받을만하다'는 인지적 왜곡도 보인다고 한다.<sup>9)</sup> 이러한 집단적인 과정에서의 방관적 행동이 학교폭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sup>10)</sup> 그 반대로 방어적 행동은 학교폭력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sup>11,12)</sup> 학교폭력에서의 참여자들은 시간이 지나도 그 역할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나,<sup>3,13,14)</sup> 방관자는 다른 역할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시사되었다.<sup>1,14)</sup> 그러므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개입이 가해자나 피해자 위주의 단순한 접근보다는 다수인 방관자를 피해 방어자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특이점은 학교폭력 가해 조력자, 가해 강화자 집단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더 높은 정신병리와 불안증상을 보였고 낮은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조력자, 가해 강화자 집단이 가해자 집단 보다 더 높은 규칙위반, 공격행동 등의 외현화 문제를 보고하였으나 오히려 직접적으로 가해자가 되기보다는 가해자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들 집단은 가해자에게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며, 학교폭력 참여에 대한 압력에 굴복할 가능성이 높다.<sup>2,36)</sup> 또한 이들은 높은 정신병리 수준과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인해 또래에게 배척당하거나 가해자에게 폭력을 당할 불안감이 내재화되어 있을 것이며<sup>8)</sup> 이들은 이런 불안감을 보상하기 위해 상대적 강자인 가해자에게 굴복하여, 그들의 대처기술인 가해를 모방하고, 학급에서의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sup>37)</sup> 학교폭력에 동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가해 조력자, 가해 강화자 집단을 학교폭력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강화시키는 친 가해 집단(pro-bullying)이라 칭하기도 하며<sup>1)</sup> 이들에게서 더 높은 정신병리 혹은 더 낮은 자존감을 확인하려는 연구<sup>1,10,38,39)</sup>가 진행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여러 한계점으로 인해 그 결과가 가설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가해자 집단은 자아존중감이 가해 조력자, 가해 강화자 집단에 비해 높았지만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집단은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떨어지고,<sup>40)</sup> 강해 보이기 위해서 혹은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가해를 하는 경향성<sup>41)</sup>이 있으며, 이들은 자존감에 있어서도 평균에 비해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sup>38,42)</sup>에서 가해자들에게 학교폭력이 그들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정신병리를 줄이는 수단일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피해 방어자 집단은 다른 참여자 집단들에 비해서 낮은 정신병리, 낮은 불안 정도와 더 높은 자아존중감, 더 긍정적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보였다. 이는 피해 방어자 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대인관계 특성과 더 건강한 자아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sup>9,14,42)</sup> 이런 피해 방어자 집단의 특성은 아마도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또래 관계에서도 경험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라 유추된다.<sup>8)</sup> 자아존중감을 나타내는 RSE 척도에서도 역시 피해 방어자가 자존감이 높고,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기존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sup>42)</sup>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나타내는 PACI 척도에서는 피해 방어자, 방관자, 가해 강화자, 가해 조력자, 가해자 순으로 나타났고, 이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폐쇄적일수록 문제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했다.<sup>43,44)</sup> Tani 등<sup>45)</sup>의 연구를 참고하였을 때 방관자

집단의 경우 위축문제와 주의집중 문제가 높다는 것은, 이들이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주변 환경에 대한 집중력 또한 떨어져있어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자가 겪는 상황이나 고통을 파악하지 못하거나<sup>9)</sup> 외면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14)</sup>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설문지 자료보고형식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대한 사실이 알려지기를 두려워하는 대상자들이 정확하게 설문지 응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설문지 조사 전 시행한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이 대상자들의 자기 보고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교사, 학부모, 특히 학생간의 평가를 통한 더욱 객관적인 정보 수집을 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학교폭력 참여자 역할 중, 피해자 집단의 분포가 빠져있다. PRQ 척도를 사용한 기존의 연구<sup>2,13)</sup>에서는 피해자 집단을 규정하는 방법으로 연구 참여자가 각자 급우 중 피해자로 생각하는 인물을 설문지에 기명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교사 간담회에서 이러한 방법의 부적절성 및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 보장의 문제가 지적되어 본 연구에서 피해자 집단의 분포에 대한 조사는 제외되었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면적 연구로 참여자에 따른 정신병리의 연관성만을 알 수 있을 뿐 종단적인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웠다. 넷째, 본 연구는 특정지역의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성별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결 론

본 연구에서 충청남도 공주시의 한 중학교의 학교폭력 참여자 역할을 분석한 결과 피해 방어자, 방관자, 가해자, 가해 조력자, 가해 강화자 순서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피해 방어자, 방관자의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이 특징적이었다. 가해 조력자와 가해 강화자 집단은 다른 어떤 집단보다 거의 모든 항목에서 더 높은 정신병리 문제를 보였고, 더 높은 불안 수준, 더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였다. 이에 반해 피해 방어자 집단은 다른 참여자 집단들에 비해서 낮은 정신병리, 낮은 불안 정도와 높은 자아존중감, 더 긍정적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학교폭력의 치료적 접근에 있어, 기존의 학교폭력 피해자, 가해자에 더해 그 이상으로 높은 정신병리를 가질 수 있는 가해 조력자, 가해 강화자를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참여자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방관자들을 피해 방어자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급 차원의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집단역동의 변화를 통해 학교폭력

의 감소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중심 단어** : 학교폭력 · 학교폭력 참여자 정신병리 · 청소년.

## Acknowledgments

이 연구는 2014년도 공주국립병원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financial conflicts of interest.

## REFERENCES

- 1) Sutton J, Smith PK. Bullying as a group process: an adaptation of the participant role approach. *Aggress Behav* 1999;25:97-111.
- 2) Salmivalli C, Lagerspetz K, Björkqvist K, Österman K, Kaukiainen A. Bullying as a group process: participant roles and their relations to social status within the group. *Aggress Behav* 1996;22:1-15.
- 3) Salmivalli C, Voeten M. Connections between attitudes, group norms, and behaviour in bullying situations. *Int J Behav Dev* 2004;28:246-258.
- 4) Twemlow SW, Fonagy P, Sacco FC. The etiological cast to the role of the bystander in the social architecture of bullying and violence in schools and communities. In: Jimerson SR, Swearer SM, Espelage DL, editors. *Handbook of bullying in school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New York: Routledge;2009. p.73-86.
- 5) Smith PK, Brain P. Bullying in schools: lessons from two. *Aggress Behav* 2000;26:1-9.
- 6) Janson GR, Hazler RJ. Trauma reactions of bystanders and victims to repetitive abuse experiences. *Violence Vict* 2004;19:239-255.
- 7) Langdon SW, Preble W. The relationship between levels of perceived respect and bullying in 5th through 12th graders. *Adolescence* 2008;43:485-503.
- 8) Moon YL.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seling*. Seoul: Hakjisa; 2006. p.69-90.
- 9) Salmivalli C. Bullying and the peer group: a review. *Aggress Violent Behav* 2010;15:112-120.
- 10) Salmivalli C. Participant role approach to school bullying: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s. *J Adolesc* 1999;22:453-459.
- 11) O'Connell P, Pepler D, Craig W. Peer involvement in bullying: insights and challenges for intervention. *J Adolesc* 1999;22:437-452.
- 12) Tapper K, Boulton MJ. Victim and peer group responses to different forms of aggression among primary school children. *Aggress Behav* 2005;31:238-253.
- 13) Salmivalli C, Lappalainen M, Lagerspetz KM. Stability and change of behavior in connection with bullying in schools: a two-year follow-up. *Aggress Behav* 1998;24:205-218.
- 14) Sim HO. A cross-sectional and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on bullying/victimization and interpersonal behavior characteristics: the participant roles approach. *Korean J Child Stud* 2005;26:263-279.
- 15) Stevens V, Van Oost P, De Bourdeaudhuij I. The effects of an anti-bullying intervention programme on peers' attitudes and behaviour. *J Adolesc* 2000;23:21-34.
- 16) Menesini E, Codecasa E, Benelli B, Cowie H. Enhancing children's responsibility to take action against bullying: evaluation of a befriending intervention in Italian middle schools. *Aggress Behav* 2003;29:1-14.
- 17) Merrell R. *The impact of a drama intervention program on the response of the bystander to bullying situations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of Rochester;2004.
- 18) Espelage DL, Gutsell EW, Swearer SM. *Bullying in American schools: a social-ecological perspective on prevention and intervention*. Atlanta: Routledge;2004.
- 19) Evers KE, Prochaska JO, Van Marter DF, Johnson JL, Prochaska JM.

- Transtheoretical-based bullying prevention effectiveness trials in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Educ Res* 2007;49:397-414.
- 20) Polanin JR, Espelage DL, Pigott TD. A meta-analysis of school-based bullying prevention programs' effects on bystander intervention behavior. *Sch Psychol Rev* 2012;41:47.
  - 21) Achenbach TM, Edelbrock CS.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1983.
  - 22) Oh KJ, Kim YA, Ha EH, Lee HR, Hong KE. Korea-youth self-report. Seoul: Huno Consulting;2010.
  - 23) Reynolds CR, Richmond BO. 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RCMAS) manual.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1985.
  - 24) Choi JS, Cho SC. Assessment of anxiety in children: reliability and validity of 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1990;29:691-702.
  - 25) Rosenberg M. 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Meas package 1965;61:52.
  - 26) Jeon BJ.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1974;11:107-130.
  - 27) Barnes HL, Olson DH.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 1985;56:438-447.
  - 28) Min HY. Circumplex model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dissertation]. Seoul: Yonsei University;1990.
  - 29) Gini G, Albiero P, Benelli B, Altoè G. Determinants of adolescents' active defending and passive bystanding behavior in bullying. *J Adolesc* 2008;31:93-105.
  - 30) Seo M. Participation in bullying: bystanders' characteristics and role behaviors. *Korean J Child Stud* 2008;29:79-96.
  - 31) Crapanzano AM, Frick PJ, Childs K, Terranova AM. Gender differences in the assessment, stability, and correlates to bullying roles in middle school children. *Behav Sci Law* 2011;29:677-694.
  - 32) Boulton MJ, Underwood K. Bully/victim problems among middle school children. *Br J Educ Psychol* 1992;62(Pt 1):73-87.
  - 33) Whitney I, Smith PK. A survey of the nature and extent of bullying in junior/middle and secondary schools. *Educ Res* 1993;35:3-25.
  - 34) Menesini E, Eslea M, Smith PK, Genta ML, Giannetti E, Fonzi A, et al. Cross-national comparison of children's attitudes towards bully/victim problems in school. *Aggress Behav* 1997;23:245-257.
  - 35) Rivers I, Soutter A. Bullying and the Steiner school ethos: a case study analysis of a group-centred educational philosophy. *Sch Psychol Int* 1996;17:359-377.
  - 36) Olthof T, Goossens FA. Emotional and motivational correlates of playing a particular role in bullying.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2003 Apr; Tampa, Florida.
  - 37) Witvliet M, Olthof T, Hoeksma JB, Goossens FA, Smits MS, Koot HM. Peer group affiliation of children: the role of perceived popularity, likeability, and behavioral similarity in bullying. *Soc Dev* 2010;19:285-303.
  - 38) Rigby K, Slee PT. Dimensions of interpersonal relation among Australian children and implications for psychological well-being. *J Soc Psychol* 1993;133:33-42.
  - 39) O'Moore M, Kirkham C. Self-esteem and its relationship to bullying behaviour. *Aggress Behav* 2001;27:269-283.
  - 40) Hong KE. Korean textbook of child psychiatry. Seoul: Hakjisa;2014.
  - 41) Farrington DP.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bullying. *Crime Justice* 1993;17:381-458.
  - 42) Salmivalli C, Kaukiainen A, Kaistaniemi L, Lagerspetz K. Self-evaluated self-esteem, peer-evaluated self-esteem, and defensive egotism as predictors of adolescents' participation in bullying situations. *Pers Soc Psychol Bull* 1999;25:1268-1278.
  - 43) Kim JY, Jang YE, Min JA. A study on the effect of school violence to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moderating effect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Korean J Youth Stud* 2011;18:209-234.
  - 44) Moon YS. The effect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n self-concept and problem behavior.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2008;14:405-414.
  - 45) Tani F, Greenman PS, Schneider BH, Fregoso M. Bullying and the big five: a study of childhood personality and participant roles in bullying incidents. *Sch Psychol Int* 2003;24:131-146.